

여성홀리스 증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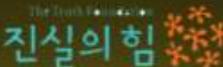
여성홀리스 당사자가 말하는 홀리스 복지제도의 문제점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19시 / 아랫마을

주최 2022 홀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후원 재단법인 진실의 힘

문의 홀리스행동(02-2634-4331)

*<재단법인 진실의 힘  진실의 힘 >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진실의 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순서

발제 홍수경 여성홈리스, 빈곤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06
증언 1 로즈마리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산다는 것	16
증언 2 사계절 숨 쉬고 편안하게 아이들과 살 수 있는 집	21
증언 3 여우하품 모자 동반 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까지	24
증언 4 김영숙 낯설고 어려운 발달장애 여성 홈리스의 말하기	28
증언 5 길순자 방의 문턱을 넘나드는 돌봄	32
부록 여성홈리스 전시회 <여성홈리스가 나눈 집 이야기> 작품	36

여성혐리스, 빈곤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여성혐리스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

홍수경 | 혐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22홍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여성팀

여성홍리스 증언대회

여성홍리스, 빈곤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 여성홍리스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

홍수경/ 홍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들어가며



홍리스추모제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을 즈음해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홍리스를 추모하고 홍리스 복지 향상 및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활동 진행



2022홍리스추모제 기획단 여성팀

- 여성홍리스의 홍리스 진입경로와 폭력 경험, 홍리스 상태에서 겪는 문제 등을 젠더 관점으로 이해하고, 복지제도에서 여성홍리스가 배제되는 문제를 드러낼 필요성
- 우리에게 더 많은 여성홍리스의 목소리가 필요!

홈리스 (HOMELESS)

홈리스(HOMELESS)

노숙인

(명사)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뼘잠을 자는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홈리스(HOMELESS)

“주거를 통해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와 권리 등이 박탈된 상태”

여성홈리스



여성이 빠진 홈리스 지원체계

[그림 6] 거처유형별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 (2016년도 비교)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4, p.170, p.185.

여성홈리스 규모

- 전국의 홈리스 수는 14,404명. 그 중 여성은 3,344명(23.2%)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보건복지부, 2021).

- 거리 노숙상태에 있는 여성홈리스라고 하더라도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53.3%)'에서 주로 지낸다(이성은·고은정, 2010: 57-58).

- 거리와 시설, 쪽방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실태조사 방식은 거리와 시설, 쪽방이 아닌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여성홈리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여성이 빠진 홈리스 지원체계

여성은 왜 홈리스가 되나

- 성별 거리노숙 계기

남성은 실직(45.9%), 사업 실패(13.5%), 이혼 및 가족 해체(11.0%)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실직(21.3%), 질병 및 장애(17.0%), 가정폭력(15.2%), 이혼 및 가족 해체(12.6%) 순임. (보건복지부, 2016).

여성홈리스의 42.1%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15.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임.

-> 홈리스라는 조건이 같더라도 성별에 따라 홈리스 진입 경로와 거쳐 선택 기준, 필요한 서비스 등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경험이 다름.

〈표 4-4-7〉 거리노숙 계기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실직	35.0	34.8	47.3	42.4	50.7	45.9	21.3	39.1	44.1	43.3
사업 실패	6.2	7.7	11.7	15.6	15.8	13.5	3.3	4.0	14.0	12.4
이혼 및 가족해체	12.5	13.7	9.4	12.6	7.7	11.0	12.6	6.2	12.1	11.2
배우자 사망	1.8	0.0	1.6	0.5	0.0	0.4	4.4	2.0	0.7	0.9
가정폭력	10.1	7.0	2.4	4.8	3.6	3.2	15.2	11.5	3.1	4.5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0.0	1.5	0.7	0.3	0.0	0.6	0.9	1.3	0.5	0.6
신용불량 또는 파산	3.4	6.8	6.3	3.7	3.2	4.9	6.5	0.0	6.0	5.1
주거지 상실	4.8	2.7	8.8	3.3	0.7	5.1	6.0	5.8	5.1	5.2
질병 및 장애	6.1	4.6	5.2	7.1	10.6	4.9	17.0	14.9	4.6	6.2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2.1	12.3	4.0	4.5	6.3	5.7	2.5	3.4	5.7	5.4
게임 및 도박 중독	2.1	4.8	0.0	0.6	0.0	1.1	0.4	0.0	1.2	1.0
사회복지시설 퇴소	1.6	1.5	0.3	0.4	0.0	0.5	1.0	2.2	0.3	0.6
교정시설 출소	1.6	0.8	0.1	0.8	0.0	0.6	0.0	0.3	0.6	0.5
기타	12.9	1.8	2.3	3.5	1.5	2.6	8.9	9.3	2.1	3.3
합계	100.0 (49)	100.0 (117)	100.0 (266)	100.0 (250)	100.0 (45)	100.0 (632)	100.0 (95)	100.0 (114)	100.0 (613)	100.0 (7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여성이 빠진 홈리스 지원체계

여성홈리스 배제적인 정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재활 시설과 노숙인 요양시설을 홈리스의 건강과 장애 상태 등에 따라 나눠서 지원하는데 대부분 남성 위주의 시설.

- 현재 여성홈리스 시설(자활, 재활 포함)은 서울을 포함 6개 광역지자체만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어떤 여성홈리스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음(운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2017년 6월 기준).



여성홈리스가 마주한 거리

거리에서의 경험

“거리에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거리에 있기 불편하기도 하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닭 쪄듯이 쪄대요. 하도 욕설을 퍼부어서 보통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못 견뎌요.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급식소에) 밥 먹으러 가면 왜 이런데서 밥 먹냐고 욕을 하고, 약을 타러가도 여자가 있어서 약타는 게 늦는다고 욕을 해. 하루는 밥을 먹으러 아침 7시에 따스한 채움터에 갔는데 70명 정도 남자들이 있고, 여자는 나 혼자야. 고개를 있는 대로 숙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대놓고 나보고 꼴린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 밥 한 두 숟갈이라도 먹으려고 간 건데. 이래서 여자들이 안 오는구나 싶었어요.”

(2018년 홈리스추모제 여성팀 구술 인터뷰 내용 중)

여성홈리스의 자리는

여성홈리스 주거지원 과정에서 당사자가 여성 전용고시원에 입주하고자 했음. 입금까지 진행됐는데 갑자기 고시원 원장으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음. 사유는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성홈리스들이 들어온 적 있는데 문제가 많았다', '다른 거주자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공동생활이라 누가 들어오는지 중요하다', '보호자 없는 사람은 안 받고 있다'임.

-> 홈리스복지지원 체계 진입의 첫 걸음 격인 주거지 확보에서 막히는 상황

여성홈리스의 존재 인정, 젠더 관점에 기반한 정책 시행



여성홈리스의 존재인정, 젠더 관점에 기반한 정책 시행

1. 여성홈리스 포괄적인 홈리스 실태조사 실시

- 정확한 정책 대상 규모와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거리, 쪽방, 시설뿐 아니라 여성홈리스가 주거처로 삼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 역시 실태조사 범위에 포괄해야한다.

2. 홈리스 성별 평가체계 마련

- 「노숙인복지법」제정 당시 여성홈리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음.
- 2019년 개정 때 신설된 조항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법률 제3조 2항),
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제7조 1항 1호의 2)을 세울 것,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제12조의 2)
- 구체 정책화된 것은 여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뿐.
- > 홈리스 지원정책 전반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선 하위법령과 종합 계획에 세부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성별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여성홈리스의 존재인정, 젠더 관점에 기반한 정책 시행

젠더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복지지원 체계수립

- 노숙인 등 복지법이 정한 복지서비스는 주거지원(제10조), 급식지원(제11조), 의료지원(제12조), 고용지원(제13조)과 응급조치(제14조)의 다섯가지로 구분.
- 각 영역에서 여성홈리스들은 남성과는 다른 젠더화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서비스에 있어 젠더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이성은·고은정, 2010,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윤소하의원실. 2017. "국정감사 요구자료"
홈리스행동. 2018. 홈리스추모제 여성팀 구술 인터뷰 중

THANK YOU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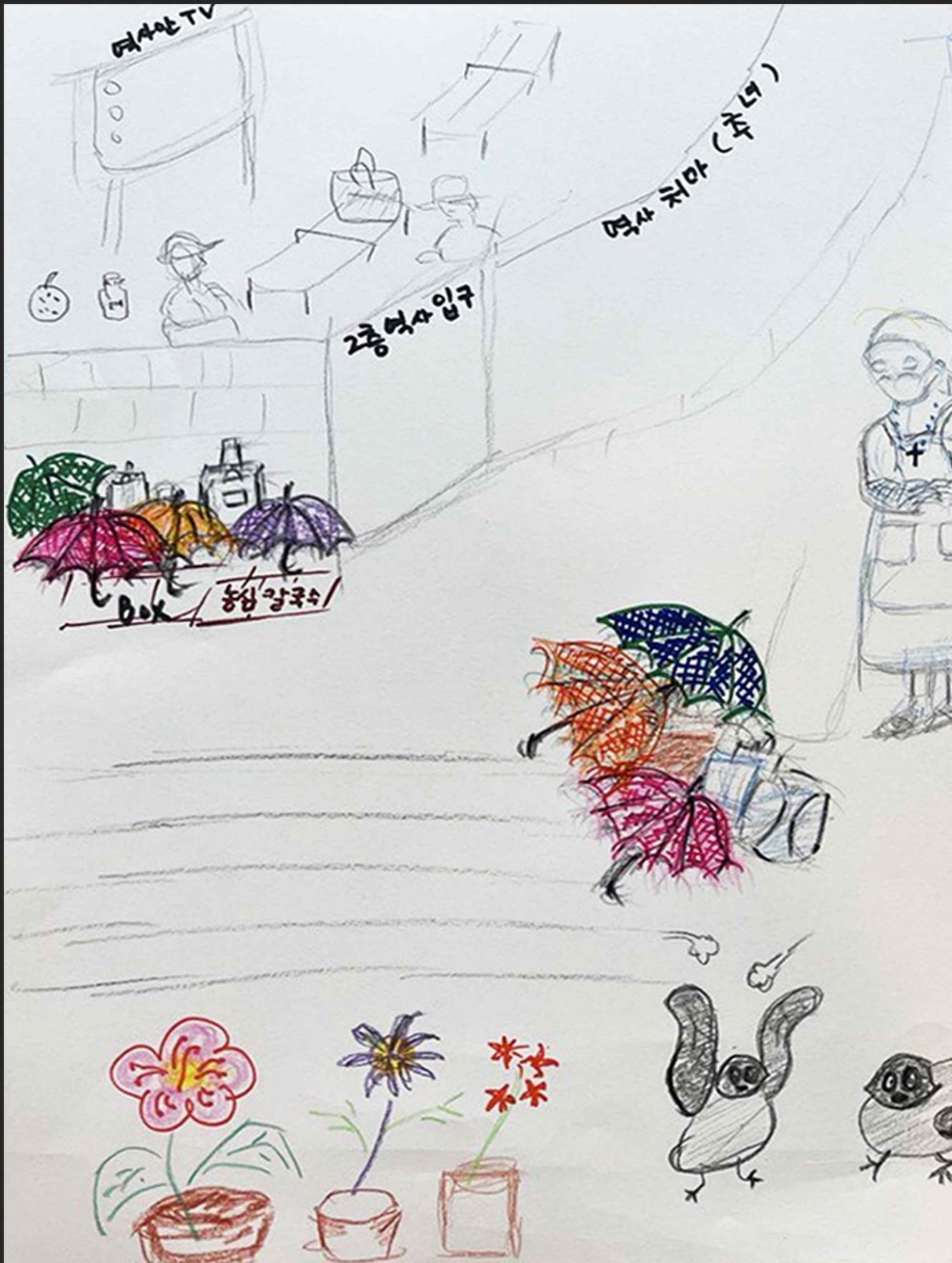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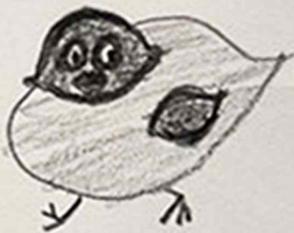
그림 | 전시 <여성홀리스가 나는 집 이야기> 중 로즈마리의 서울역 심리지도

보관함

꽃데 마트

분도이웃집 수녀님

서울역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산다는 것

로즈마리 | 홈리스야학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마리예요. 홈리스야학에 다니고 있고요. 서울역은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이에요.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하기 전엔 시설에 살았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하나 있던 딸을 데리고 시설에 들어갔죠. 그때는 시설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지냈는지 몰라요. 한 시설에 9개월 정도 머물다 보면 시설에서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태해질 것 같아서 시설을 옮기라고 했나 봐요. 통금이 있는 시설도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으면 문을 잠그기도 했어요. 한 번은 딸이랑 다니다가 통금을 넘기는 바람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다 걸리기도 했죠. 밤새 유아실 같은 데에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은 깜깜한 게 무섭다고 하니 불을 켜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설 사람들에게 몰래 들어온 걸 들키고 야단을 맞았던 적도 있어요.

시설에 오래 머물렀지만 내내 시설에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할 때는 방을 얻어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또 시설에 들어갔어요. 시설을 이용할 때도 주거 지원을 받을 방법은 못 들어봤어요. 시설 쪽에서도 그런 걸 얘기 안 해줬어요. 제 생각에는 시설 측에서 머릿수로 돈을 타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받아서 시설에서 나갈 방법을 안 알려준 것 같아요.

노숙을 시작한 건 어느 친구를 따라 서울역에 나오면서부터였죠. 제가 한동안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돈도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예전에 봉천동 근처 어느 복지관에서 지낼 때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이 헐리고 갈 곳이

없으니 그 애가 날 더러 서울역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친구를 따라 서울역으로 쫓아나갔어요.

저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잤어요. 고속터미널에서도 잤고, 영등포역이나 공덕역에서 자기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었어요. 노숙할 때는 참 여자로서 불편한 게 많죠. 어디 안 보이는 데로 숨어야 되고, 사람들 눈에 안 띄어야 하니까요. 어느 노숙인 한테 들었는데 짐승들은 자기가 자는 곳을 안 가르쳐준대요. 그게 자기한테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어디서 자는지 안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회현역에서 잘 때였어요. 제가 남들 눈에 안 보이게끔 다 가리고 잤는데도 저를 알아보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서 자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지낼 때 곁에 여자가 있으면 좀 든든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친구들이랑 다니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저를 부르기도 해요. 같이 다니면 화장실 갈 때 짐을 봐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짐을 놓고 물도 먹으러 갈 수 있거든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지금도 항상 저를 붙잡으면서 옆에서 자고 가라고 그래요. 여자뿐 아니라 남자가 같이 자고 가라고 그러기도 해요. 갈 데가 없을 때는 옆에서 자기도 했어요. “내가 옆에서 잘 테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나 지켜줘야 돼” 그러면서요. 이렇게 매일 주변 시선을 신경 쓰면서 자려고 하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밤에 잘 못 자니 낮에는 멍하니 있어요. 오전에 어디 가서 졸다가 정신이 좀 들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에 들려고 몸을 피곤하게 하기도 해요. 일부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죠.

한동안은 PC방이나 만화방에서도 지냈어요. 만화방 주인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여자는 받아주는지요. 여자도 자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는 별로 없고 다 남자뿐이었어요. 남자들 속옷이며 양말이 만화방 곳곳에 널려 있었어요. 그러다 주인이 언젠가는 ‘여자는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천상 주변에서 노숙하는 거죠. 한번은 교회에서 자는데 사모님이 여자는 오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남자들이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녀서 교회에서 자면 안 된대요. 또 여자가 오면 시끄럽다나요. 어떨 땐 자는 도중에 손이 넘어와서 저도 불편했어요.

요새는 지인 집에서 자주 자요. 최근에 자주 가는 친구네가 있어요. 그 친구는 시설에서 만났어요. 개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 딸이랑 두 살 차이였어요. 그 친구는 평일엔 아들을 다른 시설에 맡겨놓고, 주말이면 우리가 지내는 시설로 데려와서 같이 있곤 했어요. 가끔은 제가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지내고, 둘이 편하게 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도 참 제게 잘 해줬어요. 요새는 저한테 “아유 언니는 떠돌이야.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니 그렇게 다니면 밥이 나와, 뭘 가 나와” 그러면서 나보고 실속을 차리래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아파요. 그래서 걱정이죠.

숙대 근처에 있는 다시서기¹⁾에 침 맞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목요일에 여자 한의사 분이 오셔서 침을 놔줘요. 근데 거기는 여자가 거의 발걸음을 안 하거든요. 제가 침을 맞으러 가서 보면 홀에 남자들이 옷통 벗고 드러누워 있고, 장기도 두고, 별거 다 해요. 그러더니 여기는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대요. 침 맞으러 왔다고 투덜대니까는 구석에서 기다리라더라고요. 그래서 꼭 바깥에 서 있게 하더라니까요.

밥은 아랫마을이나 이웃집²⁾에서 먹기도 하고요. 서울역 주변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가기도 해요. 며칠 전엔 참좋은친구들³⁾에 오랜만에 갔어요. 저는 상대를 모르는데 남자들이 저를 알기도 해요. 여자 노숙인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저나 다른 여자들을 잘 알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래서 항상 밥을 먹으러 갈 때는 먼저 둘러봐요. ‘여자가 있나’, ‘여기 나 혼자인가’ 둘러봐요.

요새는 분도이웃집에 자주 가죠. 밥이 맛있어요. 거기는 여성홀리스들만 올 수 있게 만든 공간이에요. 이웃집에서는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아요. 다시서기나 급식소는 남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여자라고 타박하거나 눈총을 주는 일이 잦거든요. 그런데 이웃집이 서울역이랑은 조금 멀어서 짐이 많은 여성들은 오기가 불편하죠.

그렇다고 서울역이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먹고, 자고, 머무는 공간이니까

-
- 1)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갈월동에 위치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다.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사업, 신용회복, 야간잠자리, 무료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분도이웃집은 성분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여성 홀리스를 위한 공간으로 동자동에 위치한다. 식사, 샤워, 세탁 등이 가능하다.
 - 3) 참좋은친구들은 서울역 서부역 근처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집단급식소로, 개신교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요.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찾아가는 거죠. 배고프면 ‘서울역에 가면 먹을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가고, 졸리면 가고, 뉴스라도 보려면 텔레비전 있는데 가서 있어요. 저는 거리에 있는 여성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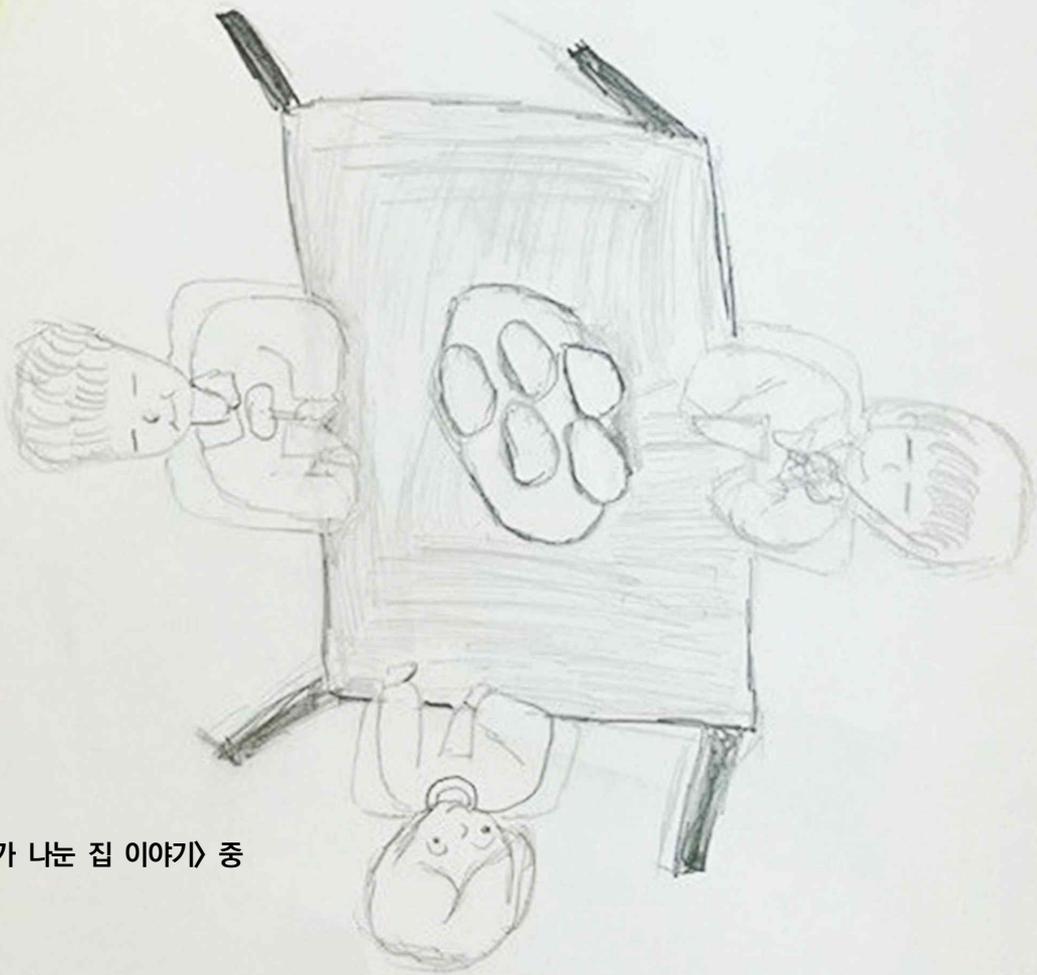


그림 | 전시 <여성홀리스가 나눈 집 이야기> 중 사계절의 그림

숨 쉬고 편안하게 아이들과 살 수 있는 집

사계절 | 홈리스야학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야학에 다니는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15살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구박하고 아빠도 자꾸 와서 때리고 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00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만난 사람과 19살에 같이 살다 20살에 첫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술을 마시면 저를 두들겨 패거나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곤 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이를 두고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긴 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서 친 엄마에게 연락해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일하던 친구가 문득 서울역에 가지 않겠냐고 해서 98년에 처음으로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날이 1998년 2월 23일입니다. 같이 온 친구가 마땅한 거처도 없는 저를 혼자 두고 가버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혹시 오갈 데가 없으면 같이 가자고 해서 서소문공원으로 갔습니다. 당시 서소문공원에는 저 말고도 여성들이 꽤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남편까지 온 가족이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서소문 공원도 점점 사람들이 줄고 갈 데가 없어서 남대문 뒤에 가면 하루에 7-8천 원 하는 쪽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루씩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 딸을 좀 봐 달라 부탁을 해서 그분이 사는 쪽방에 가서 딸을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곳에 드나드는 걸 보고 맘에 들어 한 남자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 쪽방에서 한 1년 살면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쪽방에 사는 여자들은 전부 돈을 갖고 나를 거다. 애 낳으면 애를 두고 도망간다며 남편에게 저를 헐뜯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끗하게 아

이를 낳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꾸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결국 카드 빚을 졌다며 방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남편에게 보내고 애를 데리고 친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간질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의사들이 모유를 먹이면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저에게 좋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좀 먹인다고 내가 죽을까라고 생각하며 초유도 모유도 모두 먹였습니다.

남편과 다시 만나 쪽방에서 셋째를 갖고 애가 둘이 되어서 반지하방을 얻기도 하고 남편이 수급자가 된 후에는 잠시 공공임대에도 살았지만 결국 또 문제가 생겨 헤어졌습니다. 애 둘을 일주일씩 봐주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월 30만원 받는 신문 꽃는 알바를 하면서 아는 언니 집에 또 얹혀 살았습니다. 막막해서 밤중에 서울역을 배회 하는데 삼촌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을 아냐고 찾아가보라고 소개해줬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제가 당시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진단서도 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수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얻어 아이 둘이랑 지냈습니다. 거기도 반지하였는데 위층에 사는 젊은 남자가 자꾸만 보일러 가스관을 두들기면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못살겠다 하고 지금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들이 제주 시댁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양육권을 다 정리해서 아이들을 보냈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정말 힘 들었거든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수급 상태고 장애인증이 있어서 장애비까지 74만원을 받고 있어요. 집은 LH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대출이자랑 핸드폰 요금 내고, 애들한테 돈 좀 보내주고 나면 한 20만원 갖고 한 달 생활을 합니다. 장애인증을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간질 발작하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저는 주로 밤에 발작이 일어나서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혀를 씹거나 한 상처를 보여주고 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불안정한 곳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주변 다른 여자들의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또 제가 오갈 데 없는 다른 여성을 데리고 산적도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못난 엄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그래도 니네들은 욕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애들을 끝까지 키울 거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제주도로 보내야 할 때는 너무 서운하고 제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수급비가 너무 적고 아무리 아껴도 조금이라도 모을 수 없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좁더라도 안전하고 내가 진짜 숨 쉬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있었다면 우리 애들도 아무리 없이 살아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공공임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세주택에 산 게 벌써 11년이라서 그리고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 싶은데, 주변에서 들어보니 50년은 살 수 있다고 해서요. 그 곳으로 가서 평생 살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 동반 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까지

여우하품 | 푸른꿈돌봄센터

저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여성 전용 쉼터에 거주했던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였는데 사납금을 채우고 나면 네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적은 수입도 문제였지만 사업으로 빚을 지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습니다. 당시는 IMF이후, 죽은 사람 앞으로 카드도 만들어준다는 말이 돌 정도로 쉽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던 시절이었고 남편은 카드로 빚을 내 사업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계속 되다가 더 이상은 융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절대 내 명의로는 빚내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도 2005년 갚지 못한 빚에 대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길로 둘째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이후에도 저는 계속 일을 해왔고 남편의 빚 때문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 들락거리다가 채무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늘 주거나 일자리가 시급했고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쉼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쉼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집을 나오게 되자 바로 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랑 여관 같은 데를 갈 수는 없었고 수중에 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일하던 곳의 여성 휴게실에서 며칠 지내다가 아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 용산역 근처의 단기 쉼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바로 증장기 쉼터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쉼터를 안내해주는 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걸어 먼저 상담을 받고 소개해주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여성과 아이가 갈 수 있는 쉼터가 드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쉼터에서 1년 반 정도를 지냈

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했던 쉼터였는데 사람들과 같이 모여 밥 먹고 서로 아이도 돌봐주고 하는 것은 좋았지만 비리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쉼터로 오는 각종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후원물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채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썩어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방이나 방에도 바퀴벌레가 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가 결국 첫 번째 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제로 쉼터는 최대 3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쉼터 운영자들에게 밀보여 쫓겨난 거죠. 그 다음 다행히 봉천동에 있는 좀 더 좋은 쉼터로 갔고 거기서 6개월 정도를 지냈습니다.

저는 쉼터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일단 열악하더라도 쉼터에서 숙식이 해결되기 때문에 따로 돈이 들 일이 없어서 일한 만큼 모았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있는 다른 여성들도 대부분 아이가 딸린 여성들이기 때문에 독립하기 위해 되는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 있는 여성들은 일을 길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 일이라든지 파출부라든지 이렇게 짧게 일할 수밖에 없고 실업의 위험이 높습니다. 짧게 일하는 자리라도 돈을 모아야지 시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쉼터에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무 관련 일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있던 관악 쪽에는 자활센터가 있었고 쉼터의 여성들 중 30% 정도가 지역 자활센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여성들의 돈 관리를 첫 번째 쉼터에서는 운영자였던 목사 사모가 했습니다. 여성들 앞으로 나오는 시설수급비도 가로채고 쉼터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시킨 뒤 그 월급 관리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얘기했다가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쉼터를 거친 후에 잠시 실업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때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들었고 긴급생계비라는 제도도 찾아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별이가 작아도 일을 하고 있으니 한부모 지원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쉼터에서 나와 얻은 집은 옥탑이었습니다. 제가 94년에 서울에 올라왔는

데 그 이후 거의 반지하에서만 살았거든요. 반지하의 쿵쿵함과 습기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옥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요. 세탁기가 밖에 있었는데 맨날 얼어붙고 보일러도 얼 정도였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새벽에만 보일러를 틀었는데 애가 너무 춥다고 해서 제가 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게 탁 터지면서 아이가 화상을 입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찢어지게 부르며 우는데 너무 놀라고 3도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아이가 저를 부르며 울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가난한 집에서 겪는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도 저는 쉼터에 있을 때도 열심히 벌고 모았고 그렇게 해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전세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신림동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여기는 50년 공공임대거든요. 청약을 10년 정도 부었어요. 사실 벌이가 적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청약을 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1년 이상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시설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SH 공사의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은 있습니다. 일천만원의 보증금과 십 만 원대의 월세를 감당 못해 포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행히 sh공사는 수급자에게 반값의 보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 때문에 맘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엄청 좋습니다. 일단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내 공간이고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걱정 안 해도 되고 50년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람에게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서울에 와서 살던 집은 늘 알루미늄으로 된 샷시 문이었어요. 옥탑에서 전세로 옮겼을 때, 바람만 불어도 쉽게 덜컹거리는 샷시 문이 철문으로 바뀌었을 때 느꼈던 안정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50년 동안 나는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쉼터 자체가 제게 뭘 해준 건 없어요. 다만 공간을 만들어주고 제가 먹고 자는 걱정 없이 살게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없었지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게 당시의 저에겐 정말 컸습니다. 저는 자활을 통해 어떻게 일을 했지만 요즘엔 자활 사

업단도 거의 사라지고 그런 일자리들에 고학력자, 청년들이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력도 없고 나이든 여성들은 점점 더 할 일이 없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 단기 일자리로만 가게 됩니다. 학력이 낮거나 배운 게 많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대부분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두 세 개의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도 70대 여성들이 아픈 몸을 끌고 일합니다. 그래도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생계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급자로 살고 싶습니다. 수급만으로도 살 수 있을 만큼 수급이 나와서 평생 힘들게 산 여성들이 너무 아픈 상태로 계속 어렵게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 10만원도 내지 않고 5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까지 살 집이 있다는 것은 제게 무척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낮설고 어려운 발달장애 여성 홈리스의 말하기

김영숙 | 홈리스아학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님의 발언문을 대독하게 된 홈리스추모제 여성팀 여름이라고 합니다. 영숙 님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영숙 님은 발달장애 여성이자 여성홈리스입니다. 저는 2021년 4월부터 영숙 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영숙 님과의 대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님은 제가 경험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시간이나 날짜를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옛날 일은 기억이 희미해서 해매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 님은 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살면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한 이야기, 광주에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 사실은 고향이 강원도가 아니라 광주라는 이야기, 교사로 한평생 일했던 이야기, 공장에서 한평생 일한 이야기 등... 이런 영숙 님의 이야기들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시간대에 겹치며 힘 있게 부딪혔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영숙 님의 이야기가 이중적이거나 상충 된다 느껴 오해하거나, 심하게는 진위를 의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혼란만큼, 발달장애 여성의 세계에 진입하기란 낯선 일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영향으로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낮설고 어려운 한 발달장애 여성홈리스의 진실이 이 글에 없지 않다고 소개하려 합니다. 영숙 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아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말 자체에 집중해 보길 제안합니다. 영숙 님의 말 중에 '진짜'나 '사실'이 뭔지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성홈리스의 삶을 거쳐온 영숙 님이 이 얘기를 지금, 왜, 우리에게 하는지를 생각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영숙님은 어린 시절부터 공장 기숙사, 아는 오빠 집,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의 장소에서 머무르며 여성홀리스로서 살아오셨습니다. 광주에서 가족과 다 같이 살며 고구마랑 감자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 영숙님의 엄마가 식당에서 월급을 받아오면 아빠가 반찬 살 돈까지 다 가져가서 도박에 썼다고 합니다. 아빠는 저녁에 도박장에 갔다가 새벽 5시가 꼬박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엄마에게 술 사 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렸다고 합니다.

아빠는 영숙님에게는 용돈을 안 주고 남동생만 용돈을 주는 식으로 남동생에게만 잘해줬다 해요. 하지만 아빠의 손버릇은 남동생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밥상에서 “밥 먹을 때 밥투정 하나”며 남동생의 머리를 수저로 때리기도 했고, 영숙님은 계속되는 아빠의 구박에 못 이겨 9살 때 처음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사우나에 갔다가, 아는 오빠들 집에 갔다가 그렇게 지낸 게 벌써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영숙님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촌 언니 소개로 미싱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잡자리는 공장 기숙사에서 해결했습니다. 심심하면 가끔 기숙사에서 외출하겠다고 말한 뒤 서울역으로 가서 놀았다고 해요. 4일밖에 쓰지 못했던 소중한 외박은 광주에 계신 할머니를 보러 가기 위해 썼습니다. 영숙님은 미싱 공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장에서 일하셨는데요. 대구 김치 공장, 부산 과자 공장, 춘천 향수 공장 등... 영숙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공장은 1990년대에 일했던 김치 공장인데요, 처음부터 영숙님은 김치 만드는데 소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익혔던 기술로 가끔 집에서 곱절이를 무쳐서 반찬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영숙님이 만들어본 김치를 사장이 먹어보고는, 원래 영숙님이 받던 월급이 19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통해 주거를 얻을 수 있어 안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영숙님에게 실직한 집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장 일을 관두신 뒤, 영숙님은 Y 고시원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하면 (복도) 맨 끝에 방 아저씨가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러면 (저한테) 옆에 방 아저씨인데요, 문 열어보면 경마장 가자고. 술 한 잔 먹자고.” 옆 방 남자가 계속 영숙님에게 치근덕거리고 고시원을 나오셨습니다. 영숙님은 A 쪽방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아 5년 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영숙님은 K 지역 고시원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쪽방을 떠난 이유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였습니다. 5년 동안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티던 영숙님은 '덜 더운' 주거지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영숙님은 오래 머무른 쪽방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 눈물이 나고 발이 안 떨어질 거 같아' 조용히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영숙님은 밥을 먹으며 저에게 쪽방을 떠나온 다른 이유도 말씀 해주셨습니다. 영숙님에게 집착하는 동환(가명)이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환이가 영숙님에게 짹짹거리자,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녔다고 해요. 영숙님은 동환의 집착이 점점 심해져 쪽방이 아닌 여관에서 며칠 머무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도 동환이가 쫓아왔다고 합니다. 영숙님은 '동환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A 쪽방에 있을 때부터 병이 난 거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숙님은 유방암 3기여서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슴 쪽에 혹이 7개가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물약을 먹으며 차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영숙님의 엄마도 유방암에 걸렸다고 해요. 영숙님은 아픈 엄마를 성심껏 돌봤습니다. 전복죽을 끓여주기도 하고, 비록 멀리서 일하고 있어도 엄마 집에 자주 찾아갔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랑 같이 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남동생이 몰래 침대로 와서 엄마를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엄마 옆자리에 누워있던 영숙님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을 불렀지만, 남동생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잡아땀습니다. 남동생은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영숙님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 절대로 여기서 못 꺼내 줘. 평생 거기서 썩다 나와." 남동생은 징역 4년을 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영숙님은 서울역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서울역은 싸움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싸운 사람들이 많아요. 발로 갖다가 (얼굴을) 그냥 밟는 사람도 있어요. 지하도에서 자는 사람도 때려요. 자면 가서 냅다 (발로) 눌러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암전하게 자고 있는데 때리는 사람

들이 많아요. 주먹으로 이빨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서 완전히 다 나갔잖아요.” 영숙님은 서울역에서 싸움을 지켜보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지인이 싸움에 휘말리면 말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저는 영숙님이 여성이라서 남자들이 일부러 더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남자들이 시비를 걸거나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영숙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러면 가서 신고하면 되고, 아는 삼촌들 부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영숙님은 아는 삼촌들이 자주 가는 동네에 각각 대여섯 명은 넘는다고 말해주며, 이들이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혼내준다 했습니다. 영숙님은 ‘여성혐리스’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신의 안전망을 나름대로 꾸린 듯했습니다.

발달장애 여성혐리스로 살아오면서 영숙님은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안전을 위해 남자들과 관계 맺기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숙님의 선택을 비난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자지 않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다른 남자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여성혐리스는 남자와 함께 살거나 친해지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택은 영숙님에게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숙님에게 ‘이제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해서 반지하 방을 마련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 벽지가 곰팡이로 도배되고, 천장에서 물이 똑똑 흘러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영숙님의 이야기 속에서 ‘여성혐리스’에게 허락되는 건 불안정한 주거지와 잦은 이사뿐이었습니다. 빠르게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 헤어져야 해도, 영숙님은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한 이별을 택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여성혐리스의 몸을 계속 이동시키며 생활환경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나아가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하는 방식 또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는 영숙님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머무르고 싶은 동네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여성혐리스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의 문턱을 넘나드는 돌봄

길순자 | 양동쪽방주민회 사업위원

안녕하세요. 양동에 사는 길순자 입니다. 양동 쪽방 주민회 사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양동은 아시다시피 쪽방촌입니다. 옛날에는 판잣집이 많았습니다. 애를 키우는 집도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도 옛날 남대문 교회 유치원에 노란 옷 입혀서 보내고 했습니다. 횃집도 다니고 백반집도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물수건 350장 혼자 다 빨고, 화장실 청소하고, 배추 50포기 혼자 절구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동에는 주민들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많이들 돌아가시고, 이사 가셨습니다.

양동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쪽방 주민들 다 쫓아내는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집회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경로당 자리부터 갈아엎고 아파트 올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발표 전에 쫓겨난 주민이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돈 한 푼 안 주고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개발할 때 돈을 더 챙기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건물을 팔아버리고 문을 닫으니 살 수가 없지요. 1년도 안 돼서 주민들이 반이나 줄었습니다. 지금은 200명도 안 남았습니다. 기껏 임대주택을 짓게 되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원하지 않게 쫓겨난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쪽방촌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쓸고 닦고 가꾸면서 삽니다. 저도 나서서 합니다. 여럿이 쓰는 싱크대도 닦고, 수도꼭지랑 세면장도 닦습니다.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야박한 게 뭐냐면, 그 아저씨는 청소비로 15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1,2,3층 마대질 하고 화장실 쓰레기도 다 치우는데 15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못해도 30만원은 받아야 할 텐데 관리인한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아저씨 머리가 좀 모자르다고 부러먹는 게 참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동네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노인도 많고, 장애인도 많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과일 팔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복도에 똥내가 너무 나서 방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온 몸에 오물이 묻은 채로 누워계셨습니다. 방안에는 오물이 묻은 팬티가 냉장고만큼 쌓여있었습니다. 제가 복도에 가스를 놓고 물을 끓여서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머리는 못 씻어 딱이 졌습니다. 머리 깎으러 가라니까 다리 힘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내가 깎아준다고 바리깡으로 미는데 기계가 나가질 않습니다. 기름때가 껴서요. 혼자 지낼 수 없으니 119를 불러 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쪽방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충북 음성 꽃동네 시설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래층에는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사먹을 거 사먹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가끔 제가 밥도 해서 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했더니 하루는 돈 20만원을 저한테 줬습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형님 도와준 게 아니니까 넣고 가쇼” 했더니 끝까지 받으라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 형님은 동네에서 잘 지냈는데 통장이 요양병원에 보냈습니다. 안 간다는 걸 억지로 실어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5일 계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가봅니다. 병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쪽방에선 밥 해먹기 힘듭니다. 마음에 병이 있어서 밥을 거르고 술만 먹는 주민도 많습니다. 동행식당이라고 서울시에서 식권을 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식당에 가서 생선만 두 토막을 받아옵니다. 하나는 저 먹고 하나는 앞집을 챙겨줍니다. “술을 먹어도 밥을 먹고 살아야지. 또 요양병원 갈 거야?” 라고 제가 타박도 합니다.

술이 문제지 사람들은 다 괜찮습니다. 술 먹으면 난리지만 안 먹으면 다 얌전합니다. 쪽방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을 못살게 구는 나쁜 놈들이 더 문제입니다. 동네 가게에서는 주민들이 돈 계산 어둡다고 바가지를 씩읍니다. 술 한 병 먹었는데 두 병 값을 받습니다. 주민회 위원장이 그걸 구청에 말했더니 통장이 왜 이르냐고 난리를 피우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민회에도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동네가 좋아져서 우리 주민들이 멀리 안가고 동네에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쪽방이 위험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여름에도 문을 잠그고 자긴 합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시끄러워서 문열어보니까 앞방에서 어떤 놈이 옷통 벗고 화다닥 뛰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 나갔더니 밖에 서있었습니다. 욕을 욕을 해서 내 쫓았습니다.

또 한 번은 문 잠그고 자는데 문 밖에서 “오빠 왔다”하면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 같은 소리 하네, 난 오빠 없어!”하고 내쫓았습니다. 여름에는 남자들이 덥다고 뺨쓰만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야단칩니다.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도 야단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2층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자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여자는 안전하게 따로 층을 만들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 모양을 여러 개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양동은 다 혼자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원하면 짝 지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임대주택 면적이 14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쪽방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도 방 안에 빨래 널면 방이 딱 차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래서 안 되겠지요. 최소한 18제곱미터는 되어야 합니다. 응접실도 있고, 방도 구분 돼 있어서 방 안에서 밥도 해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얼른 아파트가 잘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여성홈리스가 나눈 집 이야기〉 전시 작품

여성홀리스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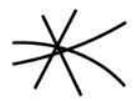
이 **집** **야** **기**

순
난
지
사
이
로

미
초
수
절
렛
리

계
사

즈



마

2022.12.22 (목)

13:00

서울역 광장

후원 : 진실의 힘
주관 : 2022 홀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 심리지도

[redacted] 종점에서 [redacted] 으로
 이시간 이웃은 2층에 사는 아저
 씨에 의해서 이틀이 겁이
 질린것 같아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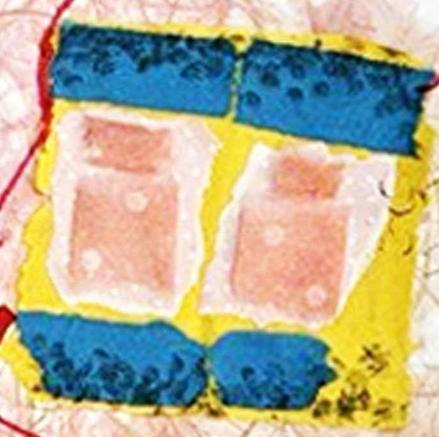
종점에서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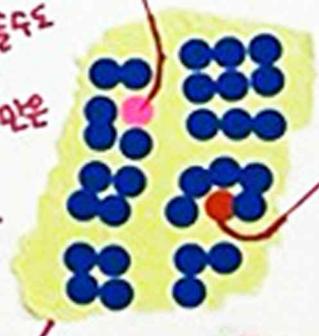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공공이 친구가
있다 ㅎㅎㅎ



여아관을 안다...
 너무 더워...
 입과...
 집주인이...
 기...
 진짜...



비...
 다른...
 부...
 화...
 전...
 일...
 그...
 알...
 주...
 세...



내가 살던 집
 CCTV를...
 안전한...
 달고...
 차...
 방...
 없...
 성...
 벗...



위...
 목...
 거...
 커...
 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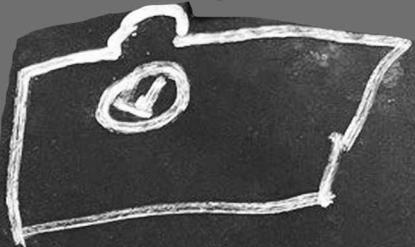






감배 이야기
음반수

사랑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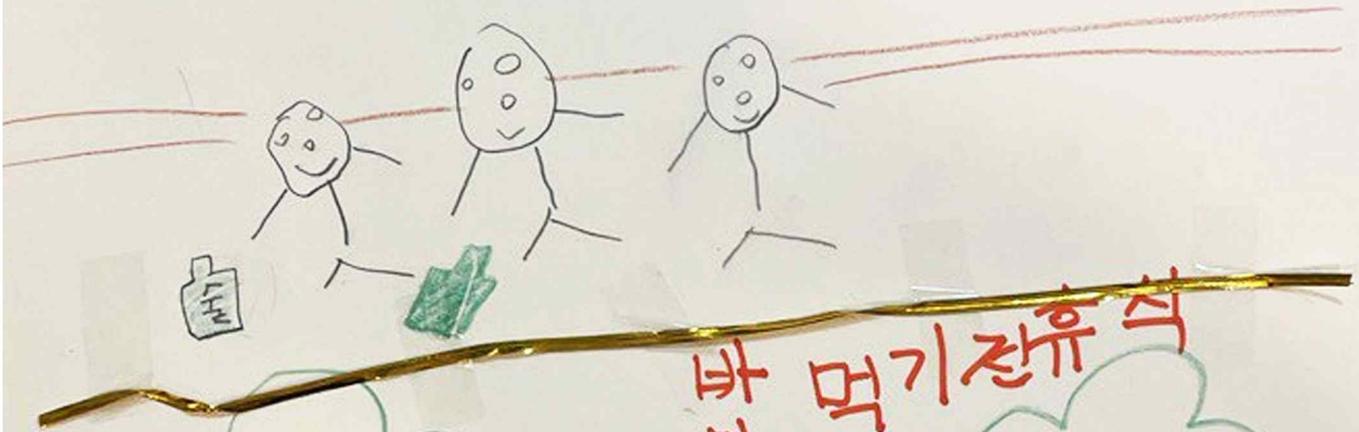
합합합합

합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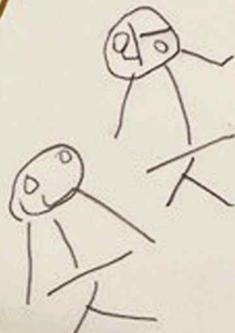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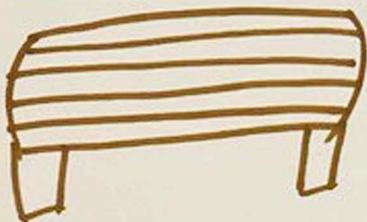
2011년 동성대
모차르트 축제

12월
12일
12시
12분

시골학교 테마트



파 먹기 잔휴식



공무원

새로운
어린이

: 나의 짐 사용 설명서

• 이 물건은 어떤 기능으로 활용하나요? 작고 작아서 쉽게 잊거나

사라질 법한 것들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올려두면,
사라지니까,
올려두는 거죠.

• 낫았습니다?
떨어졌지만
다시 사오기 어려운
것 세요! 버릴 두

• 어떤 환경에서
있나요? 아무래도
있어야 쓸만해요.
없어서, 공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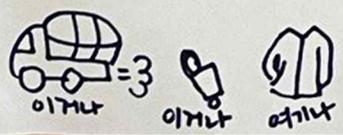


갑자기 어느순간
잘 보이게 
여기있다! 
다들려있던 정석이
엄마가 사다준,
물건이라서!
없어요! 
더 잘 사용할 두
안정적인 공간이
왜냐하면 뚜껑이
너무 좋거나 더잡거나

나의 이동이 잦으면 좋.. 더 부산스럽거나 하고 정리에 도움이 안되거든요

• 그래도 나를 지키는, 내가 지키는 물건으로 유의미한가요 쪽? 몹시 그렇습니다

이걸 골랐던, 나에게 선물했던 엄마의 마음이 좋아요. 쪽 같이 갈 나의 짐이예요.



나의집에나와함께갈 짐☆

정복궁 - 동양사

화개이발관

연남생각

구룡포 - 화개이발관

구룡포 - 구룡포

생각
- 딱

- 보내준다. 새기는
- 이용



담배 (출산 - 낳음 여생)

노란 바구니 - 아버지 1톤바시 125cc

타방 - 자판기 - 물레 키리

고기
냄새라.

인천 배석있다.

상물간

담배

고향

국민전기 해수욕장

기노남
술+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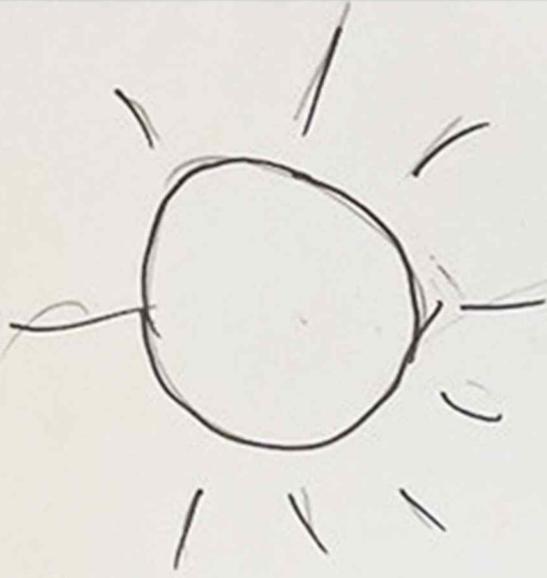
중학교 - 하얀 나무
따르따르 낮아져 가을+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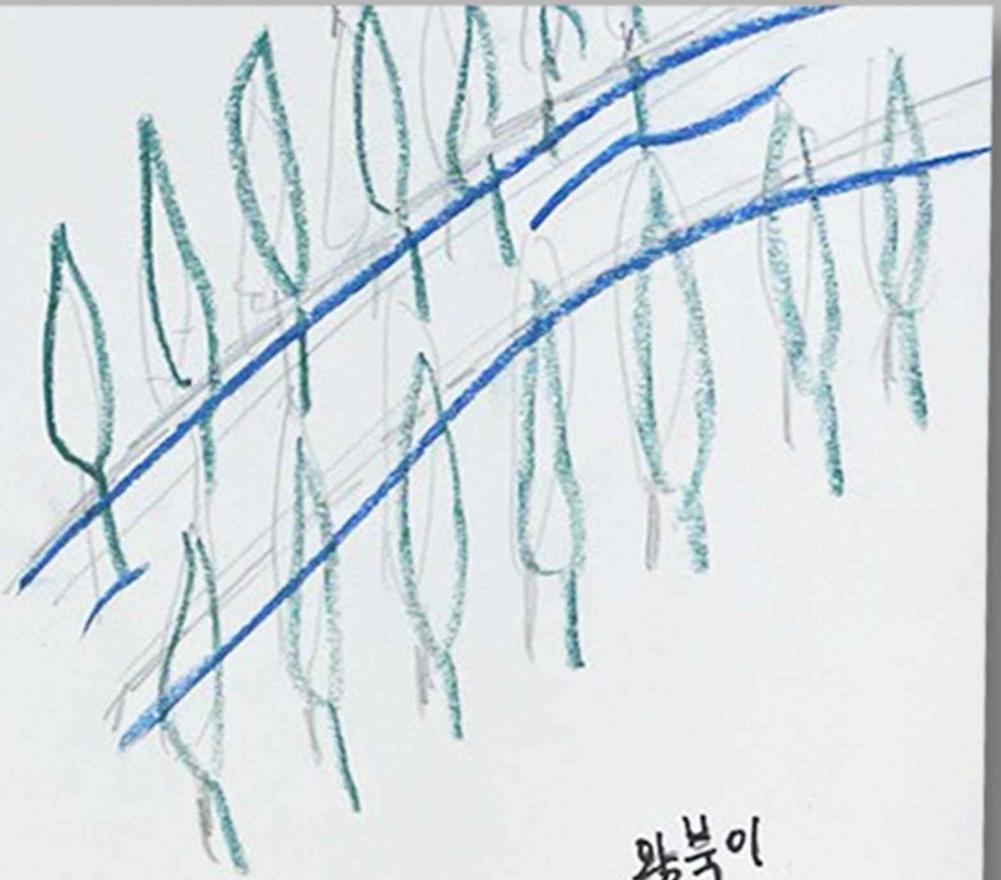
애들 출내주고

고등학교 2학년

무척상 - 가방 - 그바가 교실에서
데려다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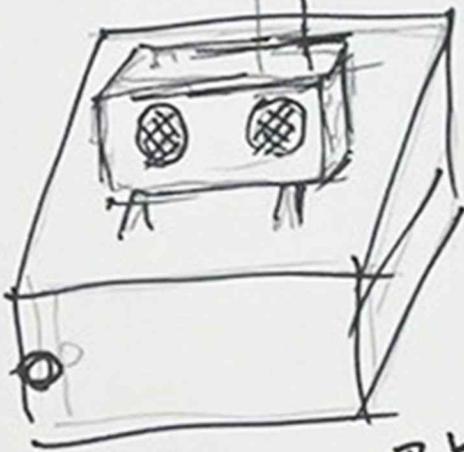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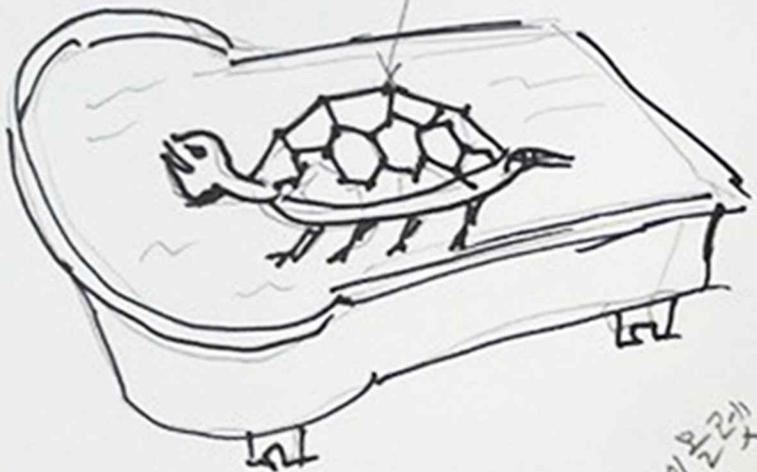
: 내 안에 있는 그 집을 찾아서





소리가

왕복이



공냥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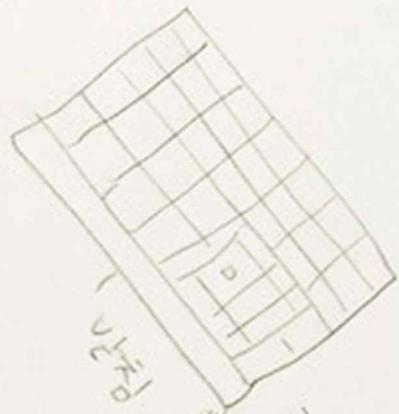
책꽂이

아프리카 바이올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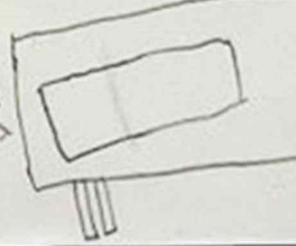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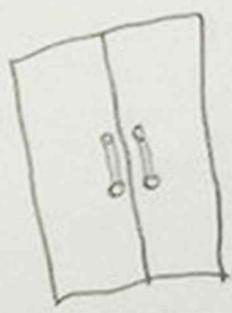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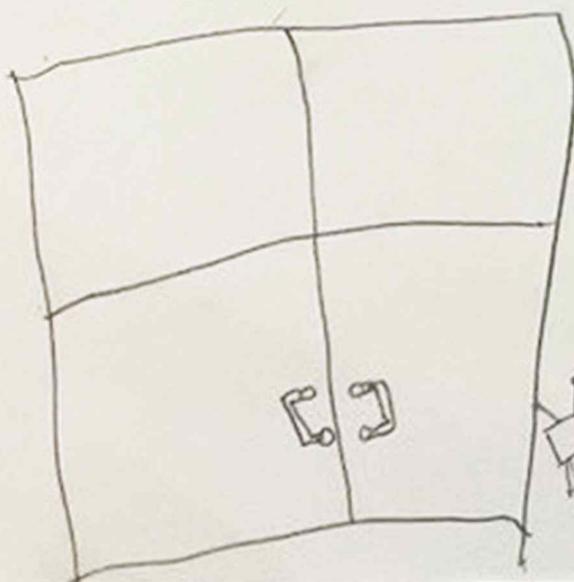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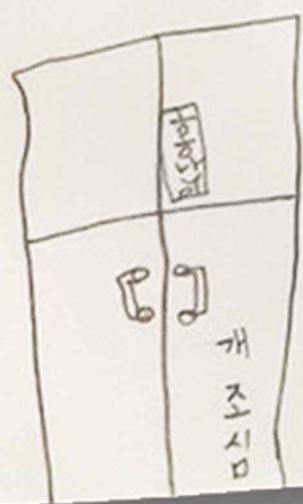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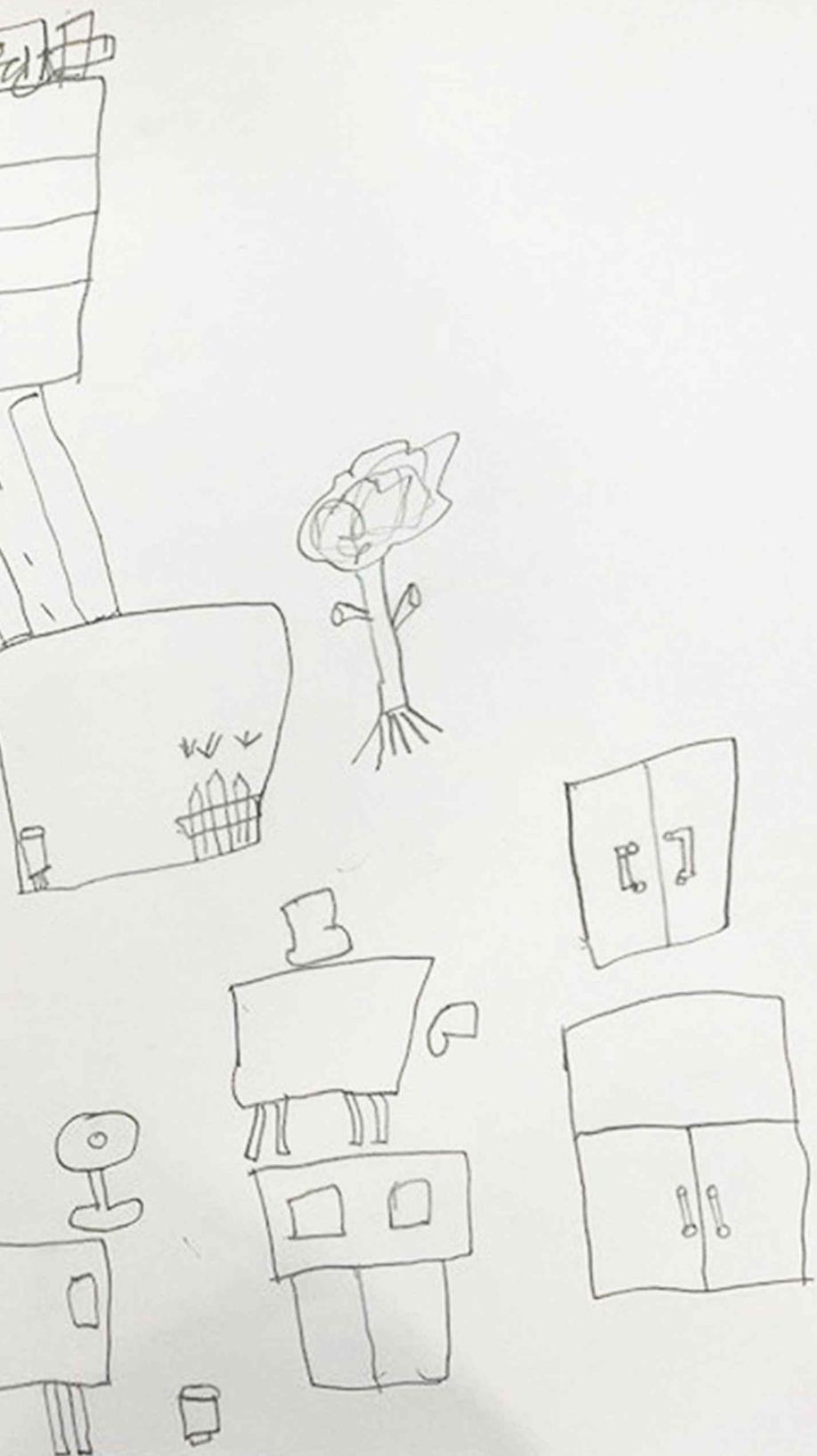
이

조항명



강아지 고양이





memo

